잔인한 전도

(살전3:1~13)

4.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6.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잔인한 전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잔인한 전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여자 권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대화를 하게 되는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를 잘 나가시지 않고, 부인이 또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반대하지도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남편이 평화시장에서 옷을 도매로 하시는 장사를 크게 잘하시다가 그게 잘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항상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형편을,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뭐 가장 임박해 있는 형편이니까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지요.
거기다 대고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의 이 경제형편이 앞으로 조금도 나아짐이 없이, 권찰님하고 온 가정이 권찰님이 아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이런 경제형편으로 지속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 경제형편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게 하나님의 권찰님을 향한 뜻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눈이 동그란데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른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권찰님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내 경제형편이,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과 같은 형편이라도 좋고, 더 나빠지더라도 좋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목사에 그 권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당한 형편에 대해서 말하게끔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잔인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뒤떨어지지 않게 잔인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전도라 그러니까, 전도 중에 따뜻한 전도 있고, 배려 깊은 전도 있고, 잔인한 전도가 있는데, 그 중에 잔인한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일입니다.
잔인하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가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때, 그 잔인함을 극한으로 표현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임산부를 창으로 찔러 죽인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앗수르 군대의 잔인함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고 시작하신 그 전도사역을 들여다보면, 앗수르 군대 저리가라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말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왜 함께 갑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런 일을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게 나쁜 겁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의 형편이, 종교지도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종교와 정치가 유대 땅 안에서는 한꺼번에 같이 통합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부패했어요, 경제는 도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쫓아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초짜들이지요, 초신자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는 저 분을 쫓아다니면 먹을 것 조금 얻어먹을 수 있겠고, 병도 좀 나을 수 있겠고, 가정이 무탈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말 소박한 무슨 뭐 재벌 되겠다고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야욕 때문도 아닌데, 그 일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시냐 하면, 그 초신자들에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연명 하듯이 해 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게 하실 수 있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드렸지만, 요즘처럼 십자가를 목걸이에 장식으로 걸고 다니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십자가가 꿈에 보이면 기겁할 때에요.
왜냐하면 눈에 십자가가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람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쫓으라는 얘기는 그냥 내 제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점입가경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부자청년이 찾아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이 부자청년이 부자 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부지런해서 돈 벌었든지, 부모님께 물려받았든지 부자 부모님께 태어난 것이 이 부자청년의 잘못입니까?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하늘의 보화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 하늘의 보화라는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자청년에게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앗수르 군인들이 임산부를 찔러서 죽이는 것보다 더 한 것이 뭐냐 하면, 앗수르 군인들이 재산도 다 뺏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가 하면, 임산부한테 창을 주면서 그 창으로 네 스스로 너를 찔러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앗수르 군대가 와서 재산을 뺏어 가면 차라리 뺏기니까 억울하기나 하겠어요, 근데 네 재산을 네 스스로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잔인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빨도 다 나지 않았을 때 오징어다리 하나 주면 먹지는 못하고 물커질 정도로 그걸 빨아댑니다, 그러다가 카펫 위에 놔요, 다른 거 만지다가 또 카펫 위에 있는 걸 집어서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축축한 오징어가 카펫에 있으니까, 카펫에 세균도 많은데 그걸 다시 입에 넣으니까, 엄마가 그걸 뺏습니다, 그리고 새 오징어다리를 주려고 그래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무리 그게 더럽고 그렇지만 좀 살살해라, 애가 숨이 딱 넘어가도록 우는데, 새 오징어다리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건 알지만, 없는 이빨로 그렇게 물컹물컹하게 만들 때까지는 자기 노력이 들어간 건데, 그걸 그렇게 갑자기 뺏으면 어떡하느냐고,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라.
주님도 좀 그러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태신앙도 부모님 따라가다가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됐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 스스로 예수님을 찾게 된 과정이 있었다면,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전도 받고 소개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받았어야 되나 하면요, '아! 사업이 잘 안 돼서 고민 돼서 예수님을 찾으시는군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전도 받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사업의 어려움이 극복됩니다!' 하고 전도 받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기꾼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지도 않은 채 싸인해서 마지막에 통째로 다 뺏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의 말 속에 잔인함이 없었다면,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잔인함이 배어있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를 잘못 받은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바로잡으면 되지요.
예수님 믿으려면, 잔인한 상태가 내게 벌어지는 것을 감내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잘된다, 형통한다, 따뜻함과 배려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는 게 구원이고, 그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그냥 따뜻하고, 배려 깊고, 인정미 넘치는 그런 것으로 알았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인정사정없는 거예요, 잔인하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염두에 둬야 풀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교회에서 전도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빌립보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과 유대인에 설득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막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도도 못한 채 베뢰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베뢰아에서 다시 아테네로 왔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마음이 안절부절 해요, '이 핍박 속에서 과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유럽에서 두 번째 전도지역이거든요? 첫 번째가 빌립보에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무슨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마디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달려든 사람들은 다 초짜들입니다, 초신자들입니다
이 초신자들이 그 예수를 믿지만 않으면 그런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박해 속에서, 그 박해를 견디면서 예수님을 믿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까, 마음이 안달이 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래서 하여간 어떤 사정 때문에 자기가 갈 수는 없었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주 공공의 적 1호가 돼 있으니까 못 갔겠지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가 갔다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온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 이 데살로니가교회 소식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박해 속에서 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냥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해와 환란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 마디로 사업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도바울에게 소개받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이 망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가게에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설득해 갖고.
이게 환란이고 박해입니다.
사도바울이 전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는 아직 네로의 박해 같은 박해가 시작되지 않고 있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박해가 그렇게 강렬하게 있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바울도 알아요, 자기가 전하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신앙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뭘 알아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분명히 박해가 올 걸 알아요, 근데 왜 전합니까?
그리고 정말 설상가상인 게, 웃기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는 '내가 살았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믿음에 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제 숨 좀 돌리겠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
너희가 지금 박해 가운데 있고, 박해를 견디고 있으니까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편으로 보면 믿음을 잘 지켜나가니까 감사한다는 얘기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지요, 그 박해라는 게 모든 걸 다 뺏기는 일인데.

그러면, 모든 걸 다 뺏기는 박해를 당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의 속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고, 주님은 또 어떻게 부자청년에게, 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게 많고 철이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구원을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하는 진지한 의문이 마음에 있는 것만도 기특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좀 살살 하시지.
그래? 그러면 우선 날 따라와, 따라오다 보면 알게 되겠지, 좀 시간을 갖고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
이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사랑하사' 이게 뭐 사랑입니까? 다 팔라는 거예요, 재산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진리에 대해서는 초신자 아닙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도 절도 없는 당신을 따라 오라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됩니까?
깡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직에서 원하는 일을 잘 못했을 때, 손가락 같은 걸 절단하는 있나 봐요.
근데 차라리, 그게 법이라서 내 손가락을 누가 절단해 주면 차라리 낫겠는데, 칼을 툭 던져 주면서 네가 네 손가락을 절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 인정사정없는 겁니다, 전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교인들에게 전도할 때 속내가 뭐였냐 하면, 이렇게 인정사정없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바울은 두 가지 환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환란과 환경의 환란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의 환란을 통해서 대 격변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족집게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들만을 십자가로 집어내서 내 마음에서 버리는데, 문제는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의 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사업체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체가 내 마음에 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는, 그 사업이 망하거나 팔리거나 빼앗기거나 해 가지고, 내 사업체가 아닌 것처럼 내 마음과 결별을 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앗수르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 내 사업체 뺏어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 일을 앗수르 군대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서 나 스스로 놓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에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말 갖고도 표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말 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찢어지는 건데, 십자가가 내 마음에서 자식을 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형제의 뭐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목숨까지, 내 몸까지도 내 마음에서 미워해서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뺏겨야 된다는, 마음의 대 환란을 겪어야 십자가가 받아들여지고,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모든 빼앗긴 걸 다 합쳐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더, 더 좋은 하나님이 주어질 거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만, 빼앗기는 과정에서 빼앗아 가는 과정에서는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건 희망은 한 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에게 환란이 임할 텐데, 이 사람들이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십자가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환경의 환란을 느끼기 전에 마음에서 대 환란을 미리 겪어야만 환경의 환란을 뚫고 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환란을 완전히 겪었을까, 이게 걱정이었는데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가게에 사람이 안 옵니다, 돌을 던져서 가게 물건들을 다 깨고 난리가 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걸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하! 참~ 이게, 역설의 역설, 반전의 반전 아닙니까?
선택 받았다는 걸 알았다.
왜?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여 가지고, 이미 마음에서 사업이 떠났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사업이 안 됐을 때도 그걸 뚫고 나갔던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업이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한다면 예수 안 믿지요, 못 믿지요.
근데 마음에서 떨궈놨던 거예요, 마음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무 잔인해요, 이거 뭐 갖고 노는 겁니까?
75세에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달라고 얘기해 본적이 없어요.
그냥 내 종이 후사가 되면 됩니다, 이스마엘이 후사가 되면 됩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준다, 사라가 낳을 것이다.
그래 줬어요, 그래서 100세에 얻었어요, 약속한지 25년 만에.
이것도 참 잔인한 거 아닙니까?
자식 없는 사람에게 자식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25년 동안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자식을 줬는데 자식이 청년으로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았겠습니까? 딱, 우리 아들 나이쯤 됐을 거예요.
아들이 한 열다섯 살, 열일곱 살쯤 됐을 거예요, 이삭이.
근데 번제로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아들이 더 중합니다.
근데 그걸 죽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죽여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겠다고 해서, 25년 만에 줘놓고,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제 열일곱 살이 돼서 한참 청년 때 아름다울 때가 되니까 그걸 또 죽이래요, 그러니까 또 죽여요, 죽이려 하니까 또 죽이지 말래요.

아! 이게 또 믿음인 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일이 전도에요.
이젠 전도를, 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 병이 낫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뜻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자꾸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결국 다들 몸이 망가지고 병들어서 죽지, 끝까지 병이 안 들면 왜 죽습니까?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나 엘리야같이 들려 올라가는 거 말고는, 병들어서 죽지 뭐 건강해서 죽습니까?
병들어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대로 죽으실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예수 믿읍시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가 가지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된다고 전도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사업은 걷어 가실지도 모르지만, 사업 없다고 하~나도 괴로울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테니까 믿자, 이렇게 전도 하라고 하는 얘기에요.
전도는 잔인한 일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내가 마음으로 진짜 좋아하고 진짜 붙잡고 붙잡아서 내 살이 돼버린 것들을 다 찢어내게 하는 역사이니까, 근데 찢어내는데 아픔이 있으니까.
그 아픔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살이 찢기신 이유가, 내 마음에 살이 되어버린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들을 십자가를 붙잡으면 다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주님의 살이 찢기신 겁니다.
자식이 살이 됐지요, 돈이 살이 됐지요, 사업이 살이 되고, 내 명예 내 인기 내 체면이 살이 됐지요, 이거 다~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고통은 주님이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잡으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일을 겪을 각오를 해야지, 그 잔인함 뒤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아버지가 내 재산이 되어 주시고, 내 기업이 되어 주시는 이런 복된 역사가 그 잔인함의 언덕을 넘어가야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십자가를 전하면서 '모~든 걸 다 버려라, 모~든 것에 대 마음이 다 죽어라, 그래야만 다가올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해 놓고는, 과연 이들이 십자

가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서 그동안 마음이 좋아서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다 죽어서, 이 환경적인 환란을 뚫고 나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환경적인 환란에 부딪쳐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해 버리고 있을 것인가 궁금해서 죽을 지경에 디모데가 와 가지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교인들이 그 환란 가운데서, 내적인 환란을 겪음을 통하여 외적인 환란들을 능히 이기고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 감사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십년동안 마음에 살이 되도록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게서 떼어 가시는 일이 십자가의 역사인데, 그래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라는 잔인함 속에 깃들어 있는 아버지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느끼며, 잔인하게 제시되는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나도 또한 잔인하게 십자가를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